

勝利者の救世主の言葉をテーマ別にまとめてご紹介いたします。私たちがどのようにすれば永生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詳しく説明します。 승리자 구세주의 말씀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宇宙で一番強い神が「私」という意識」である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이 '나'라는 의식이다

1. 宇宙で一番強い神が「私」という意識」である。
2. だから「私」に勝てば宇宙に勝った事になり、死亡の勸威を握った魔鬼に勝った事になる。
3. 死亡の勸威を握っている「私」という意識」がまさに「赤龍の魔鬼」である。
4. 誰の罪も自分の罪と思ひ、誰の誤りも自分の誤りと思つてこそ「私」に勝つようになるのである。
5. 「私」に勝ち、神さまの靈が「私」になる時、ようやく「永遠の命(永生)」を得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り、決して「私」という存在は「永遠の命(永生)」を得ることが出来ない。
6. 「自尊心」が自分を殺す「死者の魔鬼」、あるいは「赤龍の魔鬼」であり、「私」を亡びるようにする魔鬼の靈である。

1. 우주에서 제일 강한 신이 '나'라는 의식(意識)이다.
2.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주를 이겼다가 되고,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3.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 바로 '붉은 용 마귀'이다.
4.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나'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5.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단코 '나'는 영생할 수가 없다.
6. '자존심'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사자귀신'이요, '붉은 용 마귀'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마귀 영이다.

すべての不幸が「私」という意識」から起こる 모든 불행이 '나'라는 의식 때문에 생긴다

1. 人間は複雑なことを嫌がる。絡んだ巻き糸みたいなものを見るとか、非常に散らばっている机を見れば頭痛がする。
2. 人びとは、この派あの派に分裂して行く事を見る時、誰も心が痛む事である。
3. それは、もと、人はそれぞれ分けられた多人数ではなかったからだ。
4. だから、人間は複雑な分裂している心態を嫌がるのである。
5. 本来、人は神さまの心を持っていた。

1. 인간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것을 보거나, 매우 어지럽게 널려 있는 책상들을 보면 누구나 골치가 아프다.
2. 사람들은 이 파 저 파로 분열되어가는 것을 볼 때 누구나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다.
3. 그것은 원래 인간이 각각 쪼개어진 여럿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 그러기에 인간은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는 마음 상태를 싫어하는 것이다.
5. 본래의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6. しかし、その心が分裂の意識によって占領される瞬間神さまの心が二つに裂けてしまった。
7. その分裂した心を支配する主體靈がまさに「自分」を意識する「私」であったのである。
8. 「私」を意識する心があるから好き嫌いの分裂が起こり、好き嫌いがあるから友達と敵があることである。
9. これがまさに聖書でいう「善悪を知る木の實」である。この「善悪を知る木の實」こそ「私」に苦しみと争いを起こさせる「原罪」である。
10. 「私」の鼻が高いから「自尊心」が生じ、「自尊心」があるから「血氣」が沸き上がった、欲張ったりするのである。

6. 그러나 그 마음이 분열의식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둘로 쪼개져버리고 말았다
7. 그 분열된 마음을 지배하는 주체영이 바로 '자신'의 의식하는 '나'였던 것이다.
8. '나'를 의식하는 것이 있으므로 좋고 싫음의 분열이 생겼으며, 좋고 싫음이 있으므로 친구와 적이 생긴 것이다.
9.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善惡果)인 것이다. 이 '선악과'야말로 '나'로서 모든 고통과 투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죄'(原罪)이다.
10. '나'의 콧대가 높기 때문에 '자존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헐기'가 치밀어 오르고, 욕심이 생기는 것이다.

11. 「自尊心」に觸れると善が出ず悪が出るのはその根が悪だからである。

宇宙で一番強い神が「私」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이 '나'



▲甘露,露の聖靈 (감로, 이슬성령)

- 12 「自尊心」は誰が觸らなくてもそれ自體が悪なのである。
13. 「自尊心」はそれを認めてくれなければ自ら不満と不快感を感じる。
14. そして、そのような心の作用によって血が濁る。
15. 一度濁った血は心の作用を更にきびしくする。

11. '자존심'을 건드리면 '선'이 나오지 아니하고, '악'이 나오는 것은 그 뿌리가 '악'이라는 증거이다.
12. '자존심'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악'이다.
13. '자존심'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못마땅하고 불쾌해 한다.
14.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 작용에 의해서 피가 혼탁해진다.
15. 일단 혼탁해진 피는 마음작용을 더욱 좁고 각박하게 한다.

16. 「自尊心」によって生じた不満の心はその心の作用を固定観念のように固まる。
17. その次は再びその心が回生する事ができないほど疲弊してしまう。
18. そして、その體も回生される事ができない「死」に引き込まれてしまうのである。
19. このすべてのことが「私」という意識」から生じるのである。
20. また、個人の「自尊心」は個人の苦しみを起こすが、

集團的な「自尊心」は集團的な争いを起こす。戦う争いが起こってテロが発生する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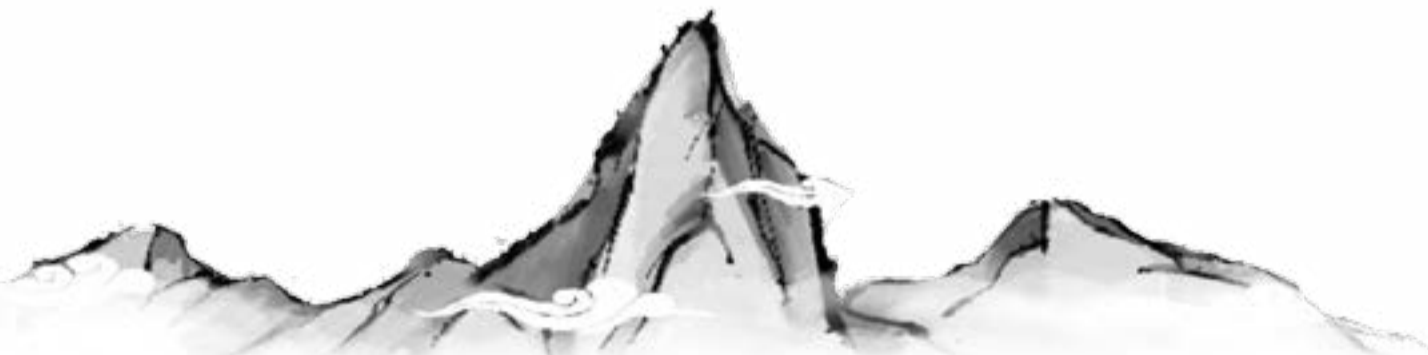
16. 그렇게 '자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못마땅해진 마음은, 그 마음 작용 자체에 의해 고정관념처럼 굳어진다.
17. 다음에는 다시 그 마음이 회생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다.
18. 그러면서 그 몸도 따라서 회생될 수 없는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19.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의식으로부터 생겨난다.
20.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존심'은 개인의 고통을 일으키지만, 집단적인 '자존심'은 집단적인 싸움을 일으킨다.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자행되는 것이다.

21. 人間は本能的に分裂と争いを嫌いながら、「私」という意識」に巻き込まれて私のものとお前のものを比べお互いに壁をめぐらし、自らが作った牢やの中に深く閉じこめられていくのである。
22. 「私」という存在は決して安易な存在ではない。
23. 人間の心の中の一番高い位置から今その心を操っているのである。
24. 現在も秒秒人間の心を握って動かすこわい存在なのである。
25. 「私」という意識」がまさに人間を苦しめて、仲たがいをさせ、結局全人類を死ぬことと破滅に陥れる元凶で、六千年間、神さまの心を踏みこじって立ち人間の心を引き裂いて互いに殺そうとした天までとどく恨みなのである。

21. 인간은 본능적으로 분열을 싫어하고, 싸움을 싫어하면서도, '나'라는 의식에 말려들어가 '내 것'과 '네 것'을 비교하고, 서로서로 담을 쌓고 스스로 자기가 만든 감옥 속으로 깊이 갇혀 들어가는 것이다.
22.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23. 인간의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지금 그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24. 현재도 초초로 인간의 마음을 잡고 움직이는 무서운 존재인 것이다.
25. '나'라는 의식이 바로 인간을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인류 전체를 죽음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원흉이며, 육천 년 간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서서 인간의 마음을 쪼개고 서로 죽이려 했던 철천지원수인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66회

구세주하나님이 한국에 오셨음을 인도불국영미로국(印度佛國英米露國)에서 특별보도하리라



格菴歌辭(三) 격암가사

우리禮贊(조선)
禮儀東方父母國(예의동방부모국)을
어이그리물나보고
節不知而共産發動(절부지공산발동)
하나님前大罪(전대죄)로다
精神(정신) 망각하여갔고
兄弟不知(형제부지)하였스니
이런冤痛(원통)또잇는가
우리봐도못다울일
仰天痛哭罪(양천통곡죄)에네
通合(통합)하소 通合(통합)하소
好時不違通合(호시불위통합)하소
원수악수지(말)라 알고보면 사랑하나
죽인죄(기)참크구나
운다운다鬼神(귀신)운다
蛇奪人心(사탈인심) 제(鬼神)귀신이
원수따라 魔鬼(마귀)우네
사람인들 안슬을가

우리 조선(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 불리어 왔고 앞으로 전 세계의 중원국(中原國)이요, 부모국(父母國)이 될 나라인데 어찌 그리 몰라보고 철부지 같은 공산정권이 발동하더니 하나님 전(前)대죄(大罪)로다. 제정신을 잃고 형제마저 몰라보니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있다 말인가? 물어 봐도 못 다 올 일이요. 하늘을 우러러 통곡해도 씻을 수 없는 큰 죄일세. 통합하소. 통합하소. 호시절(好時節)이 어김

없이 돌아오리니 통합하소. 원수 악수 짓지 말라. 알고 보면 사람 하나 죽인 죄가 참으로 크구나. 운다. 운다. 귀신 운다. 악독한 독사같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저 귀신이 원수를 따라가서 마귀가 되어 우네. 사람인들 슬프지 않겠는가?

悔改(회개)하소 悔改(회개)하소
人心魔鬼(인심마귀)물러가면
雪氷寒水解結(설빙한수해결)되고
人心大道助來(인심대도천조래)라
此堂彼堂急破(차당피당급파)하소
無疑東方天聖出(무의동방천성출)이라
若是東方無知聖(약시동방무지성)거든
英米西人(영미서인)이 更解聖(강해성)하소
若是東西不知聖(약시동서부지성)이면
更且蒼生奈且何(강차창생내자하)오
天然仙中無疑言(천연선중무의언)하니
何不東西解聖知(하불동서해성지)
時言時言不差言(시언시언차탈언)하니
廣濟蒼生(광제창생)행일(행)부라

一心同力合(일심동력합)합(합)字(자)
銘心不妄(명심불망) 冤痛(원통)이도죽은영혼
今日不明解冤世(금일불명해원세)라

회개하소. 회개하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면 눈과 얼음의 찬물처럼 꿈꿈 얼어붙은 마음이 붉은 녹 듯 풀어지고 인심의 진정한 대도를 위해 하늘의 사랑(조후)이 도와주러 오느니라. 천조(天助)는 천조(天助)이기도 하다. 이당 저당 (예배당, 법당 등)과 이익을 따라 모인 사람들의 당파)를 다 깨버리고 나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동방 땅 한국에 나타난 하늘의 사람 정도령에게 와서 빌어야 하리라. 만약 동방 땅 한국에서 하늘의 성인을 몰라본다면 영국 미국 등의 서양인에게 다시 물어 성인을 알아보소.
만일 동서양이 같이 성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또 다시 중생들은 어찌해야 하리오. 하늘나라 신선이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을 하시니 어찌 동서양에서

성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 때를 아시며 하신 말씀, 말씀마다 한 치도 어긋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바로 널리 창생을 구제하고 살리는 부적(符籙)이 되니라. 말씀 중에 감로해인이 쏟아져 나오며 이 감로해인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는 합할 합자를 깊이 명심하여 잊어버리지 마소. 원통하고 죽은 영혼들도 오늘날 맑게 해원하는 세상이 아니던가?

西氣東來上帝再臨(서기동래상제재림)
分明無疑(분명무의)되오리
道神天主(도신천주)이러하니
英雄國(영웅국)서다오리라
東西一氣再生身(동서일기재생신)
何人善心不和生(하인선심불화생)고
印度佛國英米露國特別賜詳報
(인도불국영미로국특별조선보)라

하나님이 재림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리라. 진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르러니 영웅국(세계열강들)에서 하나님이 계시 한국으로 다 모여들리라. 동서일기(東西一氣) 즉 북풍과 금풍이 합한 하나님의 기운으로 다시 몸을 나누시니(81궁 정도령) 어느 누가 선한 마음으로 화합하지 않겠는가?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특별보도하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欲識蒼生保命處 吉星照臨眞十勝』
욕식창생보명처 길성조림진십승

창생들이 목숨을 보전하는 곳을 알려거든 길성이 비추며 임하는 진짜 십승을 찾아 가라. 길성은 어두운 밤 활로(살길, 영생의 길)를 열어주는 밝은 별로서 구세주라는 뜻이며 구세주 정도령은 '밝은 별(熙星)'이라는 함자를 가지고 있다. 이분이 진짜 마귀를 이기신 십승이다. 또한 구세주는 조(曹)씨로 강림하시니 이분이 진짜 십승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조림(照臨)은 曹臨이다. 동음이의(homonym)를 이용한 암호이다. 미륵진경에 『사지천조구중생(敎罪天曹求衆生)』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는 의미로서 81궁 정도령은 조(曹)씨로 온다는 뜻이다. 그분이 진십승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QR CODE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